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 2025. 2. 26.(수) 11:00 < 2.27.(목) 조간 > 배포 2025. 2. 26.(수)

아태지역 청정전력 확대 및 전력망 안보 강화 논의

- 아시아태평양경제체(APEC) 에너지 고위급 실무회의, 경주에서 개최

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안덕근, 이하 산업부)는 아시아태평양경제체(APEC) 에너지 고위급 실무회의를 2월 26~27일 양일간 경주에서 개최하였다. 금번 회의는 APEC SOM1 개최 계기에 21개 APEC 경제체(회원국) 에너지 담당 고위급이 모여 정책 동향을 상호 공유하고, 금년 역내 경제체간 협력방안, 에너지장관회의 준비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.

* APEC(Asia-Pacific Economic Cooperation, 아·태 경제협력체) : 아태지역 최대 경제협력체로, 한, 미, 중, 일, 러 등 총 21개 회원이 참여(우리나라는 2025년도 의장국)

** SOM1(Senior Official Meeting1, 제1차 고위관료회의) : 각 경제체 외교부 고위관료가 참석하는 회의로, 동 계기에 APEC 산하회의체가 각 회의를 개최·진행

한국은 2025 APEC 에너지장관회의 의장국으로서, 금번 고위급 실무회의에서 ❶다양한 무탄소에너지 기술을 활용한 청정전력 확대, ❷전력망 안보, ❸AI를 통한 에너지 혁신 등 3가지를 올해 APEC 에너지장관회의 주요 의제로 발표했다. 특히, 청정전력 확대 및 전력망 강화는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APEC 역내 회원국간 관심이 높은 주요 의제로, 이를 위한 협력방안 모색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.

한편, APEC에너지장관회의는 8월 27~28일 양일간 부산에서 개최되며, 동 회의 계기에 청정에너지장관회의(8.26~27) 및 기후산업박람회(8.27~29)가 연계 개최됨에 따라, 총 40여개국 에너지장관급이 방한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과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큰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조익노 에너지정책관은, “이번 회의를 통해 APEC 경제체간 정책 동향을 교류하고, 에너지장관회의에서 다룰 핵심 의제를 논의할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”이었다며, “이번 회의에서 나온 경제체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의제를 구체화해 나가는 한편, 경제체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올해 에너지장관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”이라 밝혔다.

담당 부서	에너지정책관 에너지정책과	책임자	과 장	이경수(044-203-5120)
		담당자	서기관	유재영(044-203-5125)
			사무관	윤다은(044-203-5131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